

아카시아채밀현장을 찾아서

(강원도 인제군 김정수 회원 채밀현장)



강원도 인제군 김정수씨의 봉장



아카시아꿀 채밀 모습

강원도 인제군 김정수 회원은 지난 2006년 홍수와 산사태로 양봉장이 유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금년 아카시아 채밀 60드럼을 생산했다.

다음은 김정수 회원과 일문일답이다.

- 2006년 홍수피해는 얼마큼이었나?
삼단 계상 150통이었다. 피해 보상금은 3,500만원 정도였으며 양봉장 복구, 봉 기구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 벌은 단상 1~2매로 해서 번식시켜 사용하였고 벌은 구입하지 않았다. 만약 벌을 구입했다면 보상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또, 로얄제리 생산량도 저조하다.
- 인제양봉농가 중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30명중 19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 올해 양봉은 어떤가?
500군으로 제주도에 들어가서 200군은 팔고 300군으로 시작했다.
- 해마다 제주도를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제군은 지리적 특성상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제주도 이동이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차량이동 비용과 이동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집과 제주도를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따라서 남해안으로 이동하는 것과 제주도 이동하는 비용의 차이는 없고 시간적인 이점이 오히려 유리하다. 인제에서 5농가가 이동했는데 화분이 좋아 봄 벌 사육도 유리하다.

- 매년 몇 월 달에 이동을 하나?
12월 2번째 한파가 시작되면 제주도로 이동한다. 제주도 내 해발200M 지점으로 이동한 후 1월 달에 평지로 이동한다.
- 종업원은 쓰고 있는가?
제주도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육지로 이동 후 종업원 2명과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다.
- 올해의 이동 경로는 어땠는가?
제주도, 마산, 충청도, 경기도, 철원, 등 모두 4번 이동했다.
- 어느 지역에서 꿀 생산이 가장 좋았는지?
남부지역에서의 생산이 좋았다.
- 올해의 생산량은 얼마큼 나왔나?
3단 계상 200군으로 약 60드림 생산했다. 올해 생산된 벌꿀의 색깔, 농도, 향기 등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 올해를 풍작으로 생각하는지?
생산량은 많았지만 벌 군수가 많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평년작이다. 하지만 최근 4~5년과 비교한다면 대풍이라고 할 수 있다.
- 협회에서 항생제검사를 강화하면서 올해 벌 사육 방법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물론 주변의 많은 양봉농가들도 항생제사용에 많은 주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양봉조합에서 공급하는 항생제만 사용한다. 묵은 소비를 교체해서 새 소비를 사용하는 것이 항생

제 잔류를 줄일 수 있고 아카시아 벌꿀 색깔이 좋아지며, 벌의 병도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 협회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한 덕분에 양봉농가들이 항생제 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벌이 사라지는 원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급수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매년 칠곡 인근 하빈으로 이동했는데 이동 후 벌이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지난해부터 마산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부터는 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없었다.
- 협회, 조합,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합은 꿀이 안 팔리는 원인을 단순히 사양 꿀 때문이라 치부하지 말고 생산된 벌꿀이 팔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또한 좋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 벌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사양꿀의 사용처를 개발하여 사양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방안 마련했으면 한다.
또, 정부는 소규모 고정양봉농가나 취미양봉농가가 아닌 전업양봉가 우선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소규모 고정양봉농가로 인해 점차 이동 양봉농가가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지금과 같이 농가와 정부의 다리역할을 충실히 하여 농가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좀 더 많은 힘을 쏟았으면 한다.
농가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